



발 간 등 록 번 호
11-1240245-000014-10



한국의 사회동향

Korean Social Trends 2022
<http://sri.kostat.go.kr> 2022



통계청
통계개발원

주관적 웰빙 영역의 주요 동향

한준 (연세대학교)

- 한국 사회는 이스탈린의 역설이 주장한 바와 같이 주관적 웰빙 수준의 시계열적 변화나 국제적 비교 모두 경제성장이 진행될수록 완만하게 높아지고 있다.
- 주관적 웰빙을 구성하는 삶의 만족도, 긍정 및 부정적 정서경험, 유데모니아 모두 최근으로 올수록 극단치가 줄어들며, 주관적 웰빙 수준이 완만하게 높아지고 있다.
- 주관적 웰빙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동시에 주관적 웰빙의 표준편차는 만족도와 정서경험, 유데모니아에 걸쳐 낮아지고 있다. 주관적 웰빙의 불평등이 완만히 줄어드는 것이다.
- 성별 주관적 웰빙의 차이는 크지 않고 줄어드는 추세인 반면, 연령대별 주관적 웰빙의 차이는 상당하여 30대가 가장 높고, 60대 이상이 가장 낮은 패턴을 보인다. 코로나19 이후 농어촌은 도시에 비해 낮은 주관적 웰빙 수준을 보인다.

주관적 웰빙은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의 삶에 대해 만족하는가, 긍정적 혹은 부정적 정서 경험을 얼마나 하는가, 그리고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의미와 보람을 느끼는가 등 인지적, 정서적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얼마나 잘 사는가를 의미한다. 복지(Welfare)가 주로 객관적이고 물질적으로 삶에 불편과 불안이 없는가

를 나타낸다면, 웰빙은 보다 주관적이고 비물질적으로 삶에 불만과 불행이 없는가를 나타낸다.

주관적 웰빙이 사회적 삶에서 중요하게 부각된 것은 전 세계적으로는 20세기 후반, 한국에서는 21세기 들어서이다. 한국 사회는 그동안 압축적 경제발전에 의해 평균적인 물질생활이 풍요로워지고, 사회복지 및 보장정책에 의해 절대적 빈곤층이 크게 줄어들었지만 비물질적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비중은 늘어났다. 정신적 우울감을 호소하거나 더 나아가 자살 충동을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도 낮은 주관적 웰빙을 보여준다.

최근에는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삶의 반경이 줄어들고, 건강에 대한 불안이 높아지는 등 주관적 웰빙에 영향을 크게 미칠만한 변화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다. 세대간, 젠더간 격차와 갈등으로 인해 다양한 인구집단 간의 주관적 웰빙에서의 차이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최근 주관적 웰빙 수준의 변화와 함께 다양한 격차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을 위해 사용한 자료는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 Survey)」, 「사회통합실태조사」, 「한국 아동·청소년 행복지수조사」, 「세계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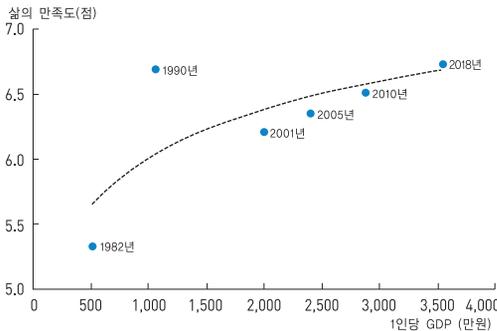


주관적 웰빙 수준의 변화

삶의 만족도

한국의 정부 승인통계에서 주관적 웰빙을 체계적으로 측정하기 시작한 것은 2010년 이후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한국의 주관적 웰빙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는 제한되어 있다. [그림 XII-1]은 「세계가치관조사」의 1인당 GDP 대비 삶의 만족도 변화 추이를 보여주는 산점도이다.

[그림 XII-1] 1인당 GDP와 삶의 만족도 수준의 장기적 관계, 1982-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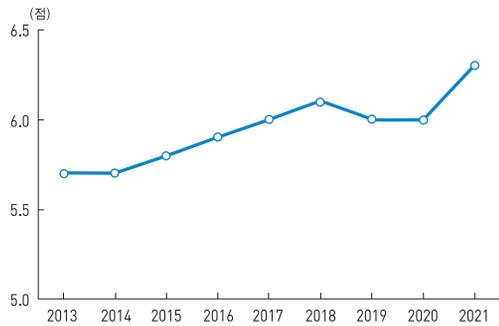


주: 1) 통계치는 자신의 삶에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해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0점)~'매우 만족한다'(10점)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평균값임.
 2) 1인당 GDP는 PPP(Purchasing Power Parity, 구매력 평가) 기준 실질 GDP이며, 단위는 원화 만 원임.
 출처: Inglehart, R., C. Haerpfel, A. Moreno, C. Welzel, K. Kizilova, J. Diez-Medrano, M. Lagos, P. Norris, E. Ponarin & B. Puranen (eds.), 2022. World Values Survey: All Rounds – Country-Pooled Datafile. Madrid, Spain & Vienna, Austria: JD Systems Institute & WWSA Secretariat. Dataset Version 3.0.0. doi:10.14281/18241.17

경제학자 이스털린(Easterlin)은 물질적 생활 수준의 향상 결과로 삶의 만족이 높아지지만 일

정한 한계를 넘으면 그 관계는 매우 약해진다고 하는 이스털린의 역설을 제시했다. 이스털린 역설의 경험적 검증은 한 사회의 장기적 추세나 여러 사회의 비교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림 XII-1]은 한국의 장기적 추세를 통해 이스털린의 역설이 한국에도 적용되는가를 보여준다. 1인당 GDP가 약 500만 원에 불과했던 1982년 삶의 만족도 평균은 10점 만점 기준 5.3점 정도로 낮았다. 1,000만 원을 넘어선 1990년의 삶의 만족도 평균은 6.7점 정도로 크게 높아지지만, 2,000만 원을 넘어선 2000년대 이후에는 완만하게 상승하는 패턴을 보인다. 1인당 GDP 3,500만 원을 넘은 2018년의 삶의 만족도는 1990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인다.

[그림 XII-2] 삶의 만족도 평균 점수, 2013-2021



주: 1) 통계치는 자신의 삶에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해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0점)~'매우 만족한다'(10점)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평균값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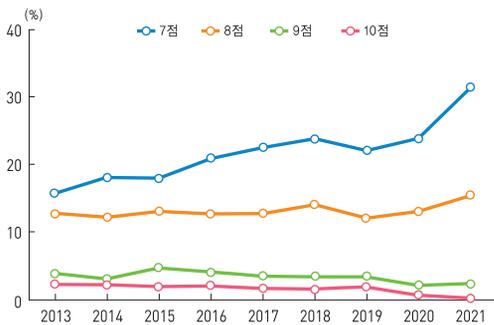
[그림 XII-2]는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 조사된 삶의 만족도 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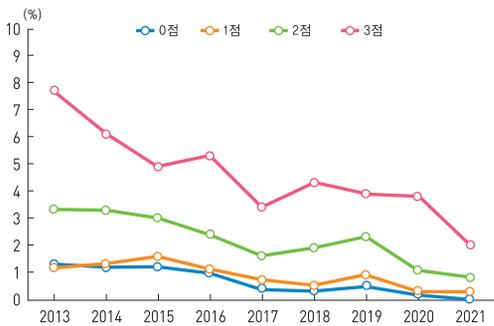
균 추이를 보여주는 것이다. 삶의 만족도 평균은 처음 조사가 시작된 2013년(5.7점)부터 2018년(6.1점)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낸다. 이후 2020년까지 정체하다 2021년 6.3점으로 상승하였다. 이처럼 2010년대 초반 이후 삶의 만족도는 두 조사 모두에서 정체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림 XII-3] 삶의 만족도에서 만족과 불만족 비율, 2013-2021

1) 만족 비율



2) 불만족 비율



주: 1) 삶의 만족도는 자신의 삶에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해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0점)~'매우 만족한다'(10점)의 11점 척도로 조사되었으며, 만족은 7점~10점, 불만족은 0점~3점으로 응답한 비율을 나타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각 연도.

[그림 XII-3]은 삶의 만족도 수준에 따른 변화를 보다 상세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위는 삶의 만족도 수준이 높은(7~10점) 비율의 변화를, 아래는 삶의 만족도 수준이 낮은(0~3점) 비율의 변화를 보여준다. 삶의 만족도 수준이 높은 비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7점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013년 15.8%에서 2021년 31.4%로 두 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8점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013년 12.8%에서 2021년 15.5%로 완만하게 늘었고, 9점과 10점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013년의 3.9%와 2.3%에서 2021년 2.4%와 0.2%로 줄었다. 삶의 만족도 수준이 낮은 비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3점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013년 7.7%에서 2021년 2.0%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고, 2점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2013년 3.3%에서 2021년 0.8%로 줄었다. 매우 불만족을 나타내는 1점과 0점은 각각 2013년 1.2%와 1.3%에서 2021년 0.3%와 0.0%로 줄었다.

정서 경험과 유테모니아

주관적 웰빙에는 삶의 만족과 함께 정서 경험이 포함된다. 삶의 만족이 삶의 전반에 걸친 장기적인 인지적 차원에서의 평가를 나타낸다면, 정서 경험은 단기적인 정서적 경험의 여부를 나타낸다. 그렇기 때문에 정서 경험의 측정은 비교적 기억하기에 용이한 하루 전날의 경험에 대한 질문을 한다. 정서 경험은 긍정적 방향과 부정적 방향, 그리고 강한 수준과 약한 수준으로 나뉜다. 긍정적 정서 경험으로는 행복감을, 부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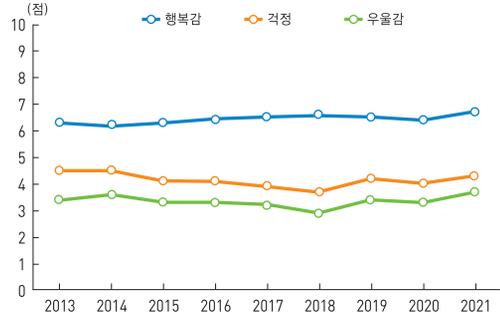
정서 경험으로는 걱정과 우울감을 얼마나 경험했는지를 묻는다.

[그림 XII-4]의 「사회통합실태조사」에 나타난 긍정 정서인 행복감의 추세는 앞서 삶의 만족도 추세와 대체로 유사하다. 삶의 만족도와 마찬가지로 11점 척도(0~10점)로 측정된 행복감은 2013년 6.3점에서 2018년 6.6점까지 완만히 상승하고 2020년 6.4점까지 낮아지지만 2021년 다시 6.7점으로 상승한다. 반면 부정 정서인 걱정과 우울감의 경우는 최근 추세에서 삶의 만족도나 행복감과 차이를 보인다. 행복감과 동일 척도로 측정된 걱정과 우울감은 2013년 각각 4.5점과 3.4점에서 2018년 3.7점과 2.9점으로 낮아지지만 이후 높아져 2021년 각각 4.3점과 3.7점을 기록하였다. 코로나19 이후인 2021년에 긍정 정서인 행복감은 이전에 비해 다소 높아졌지만, 부정 정서인 걱정과 우울감은 낮아지지 않고 계속 높아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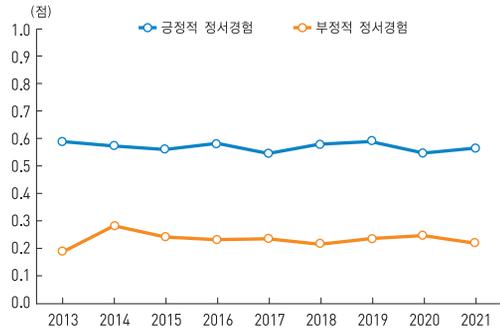
또한 「세계행복보고서(갤럽 월드폴)」를 통해서도 2013년에서 2021년까지의 한국의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 경험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갤럽 월드폴(Gallup World Poll)은 긍정 정서를 행복감, 웃음, 즐거움의 세 정서를 통해, 부정 정서는 걱정, 우울감, 분노의 세 정서를 통해 측정하며,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의 평균은 1점 만점 기준이다. 조사에 따르면 긍정 정서는 2013년부터 2021년까지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 반면, 부정 정서는 2014년 이후 완만하게 악화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림 XII-4]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 경험, 2013-2021

1) 사회통합실태조사



2) 갤럽 월드폴



주: 1) 사회통합실태조사의 긍정 정서는 행복감(0~10점 척도)의 평균값이며, 부정 정서는 걱정 및 우울감(0~10점 척도) 두 가지 정서 경험의 개별 평균값임.

2) 갤럽 월드폴의 긍정 정서는 행복감, 웃음, 즐거움 세 가지 정서 경험(0~1점 척도)의 평균값이고, 부정 정서는 근심, 우울, 분노 세 가지 정서 경험(0~1점 척도)의 평균값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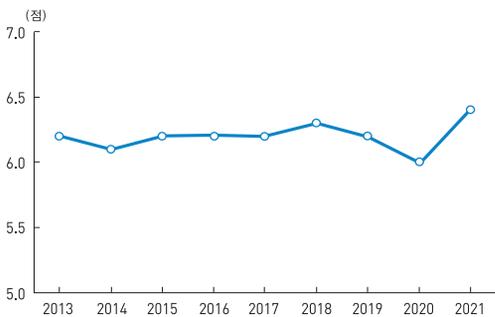
UN, World Happiness Report, 2022.

유데모니아는 본인이 하는 일이 의미와 보람이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이다. 삶의 만족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차원을 측정하는 것으로 OECD 주관적 웰빙 측정 권고의 세 번째 차원이다.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는 본인이 하는 일의 의미와 보람을 삶의 만족도와 마찬가지로 11점 척도(0~10점)로 측정한다. [그림 XII-5]를 살펴보면,



유데모니아는 2019년까지 큰 변화를 보이지 않다가 코로나19 직후인 2020년에 전년 대비 0.2점의 감소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2021년의 유데모니아 수준은 6.4점으로 코로나19 이전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XII-5] 유데모니아 수준, 2013-2021



주: 1) 통계치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전반적으로 얼마나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전혀 가치 없다'(0점)~'매우 가치 있다'(10점)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평균값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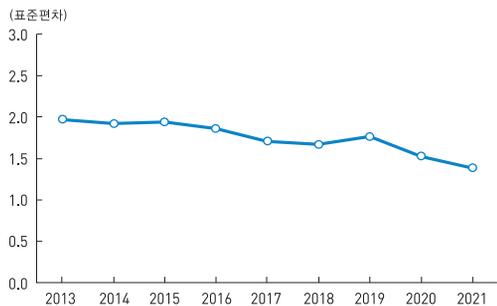
주관적 웰빙 격차의 변화

주관적 웰빙 응답이 평균을 중심으로 모여 있으면 불평등이 상대적으로 낮고, 퍼져 있으면 불평등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는 평균을 중심으로 한 응답의 표준편차를 통해 알 수 있다. 여기서는 주관적 웰빙 격차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삶의 만족도, 행복감, 걱정, 우울감, 유데모니아의 표준편차 변화를 추적하였다.

[그림 XII-6]은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 삶의 만족도에 대한 표준편차의 변화를 보여준다. 삶

의 만족도의 표준편차는 2016년까지 큰 변화를 보이지 않다가 2017년 1.7로 낮아졌다.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 코로나19 이후 다시 낮아져 2021년에는 1.4까지 낮아졌다. [그림 XII-3]의 삶의 만족도 수준 변화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매우 불만족에 해당하는 0~1점, 매우 만족에 해당하는 9~10점의 응답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보여진다.

[그림 XII-6] 삶의 만족도 표준편차의 변화, 2013-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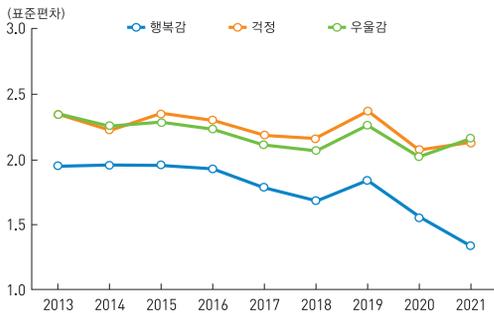
주: 1) 통계치는 삶의 만족도(0~10점 척도)에 대한 연도별 응답값들의 표준편차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XII-7]은 긍정 정서인 행복감과 부정 정서인 걱정과 우울감에 대한 표준편차의 변화를 보여준다. 행복감에 대한 표준편차는 삶의 만족도 표준편차와 대체로 비슷한 변화 추세를 보인다. 이에 비해 부정 정서 경험의 격차는 보다 크게 나타난다. 걱정과 우울감의 표준편차는 대체로 비슷한 수준과 변화 양상을 보이는데, 2013년 걱정과 우울감 표준편차 모두 2.3에서 2021년 각각 2.1과 2.2에 이르기까지 등락을 거듭하면서



완만하게 낮아지는 추세를 보인다. 행복감과 삶의 만족도에 비해 걱정과 우울감의 표준편차가 더 큰 것은 '전혀 걱정이 없다', '전혀 우울하지 않다'라는 응답 비중이 '매우 행복했다'라는 응답보다 더 높았기 때문이다. 즉 긍정적 방향의 극단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데 따름이다. 한편 최근 부정적 정서 경험의 격차가 줄어든 것은 '매우 걱정이 많다', '매우 우울하다'의 응답 비중이 줄어들었다기보다 '전혀 걱정이 없다', '전혀 우울하지 않다'의 비중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그림 XII-7] 행복감, 걱정, 우울감 표준편차의 변화, 2013-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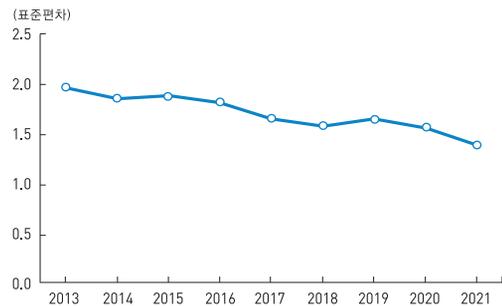
주: 1) 통계치는 긍정적 정서 경험인 행복감(0~10점 척도)과 부정적 정서 경험인 걱정 및 우울감(0~10점 척도)에 대한 연도별 응답값들의 표준편차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준편차로 측정된 유데모니아의 격차 역시 다른 주관적 웰빙 측정치의 표준편차와 비슷한 추세를 보인다(그림 XII-8). 유데모니아의 표준편차는 2013년 2.0에서 2017년 1.6까지 낮아지다가 코로나19 이후인 2021년에는 1.4로 더 감소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전반적인 격차의 추세는

비슷하지만 삶의 만족도와 유데모니아 격차의 감소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삶의 만족도의 격차가 감소한 이유는 극단적인 불만족의 비중이 낮아진 데 따름인 반면, 유데모니아의 경우에는 자신의 일이 매우 가치 있고 보람 있다라는 비중이 감소한 것이 중요한 이유이다. 즉 최근 유데모니아의 평균은 높아졌지만, 이에 반해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한 가치와 보람을 크게 느끼는 사람의 비율은 줄어든 것이다.

[그림 XII-8] 유데모니아 표준편차의 변화, 2013-2021



주: 1) 통계치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전반적으로 얼마나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지(0~10점 척도)에 대한 연도별 응답값들의 표준편차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원자료, 각 연도.

인구집단별 주관적 웰빙 변화 비교

주관적 웰빙의 전반적 격차와 함께 인구학적 집단별로 비교하는 것도 중요하다. 성별이나 연령집단에 따라 주관적 웰빙이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세대와 젠더가 불평등이나 격차의 중요한 기준이 된 요즘에는 더욱 그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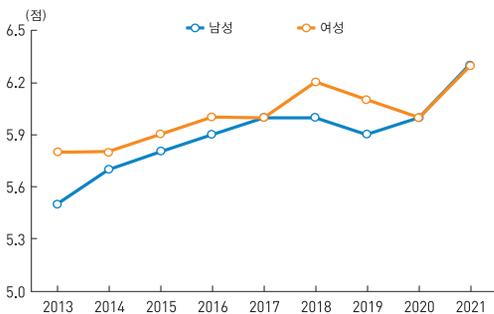


OECD에서 삶의 질 지표를 제시하면서 인구집단별 격차를 함께 제시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이다. 이 글에서는 성별 및 연령별 비교와 함께 도시와 농어촌의 주관적 웰빙 또한 비교하고자 한다. 도시의 물질적 편익과 복잡하고 바쁜 일상이 농어촌의 단순한 삶과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를 알고자 하는 이유에서이다.

성별 주관적 웰빙의 변화

[그림 XII-9]는 성별에 따른 삶의 만족도 평균을 보여주는 것이다. 2013년의 삶의 만족도는 여성 5.8점, 남성 5.5점으로 여성의 삶의 만족도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성별 차이는 줄어들어 2017년에는 남성과 여성의 삶의 만족도 평균이 6.0점으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2018년 삶의 만족도는 여성이 6.2점, 남성이 6.0점으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코로나19 이후 다시 동일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XII-9] 성별 삶의 만족도 비교, 2013-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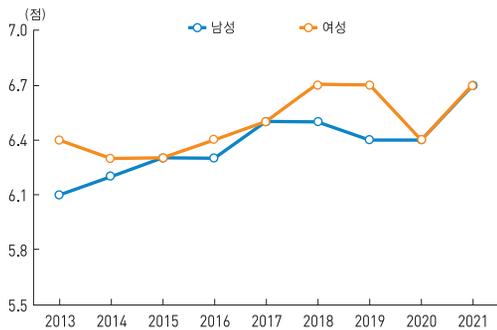


주: 1) 통계치는 자신의 삶에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해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0점)~'매우 만족한다'(10점)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평균값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각 연도.

[그림 XII-10]은 긍정 정서인 행복감과 부정 정서인 우울감의 성별 비교를 보여주는 것이다. 행복감은 2013년과 2018년, 2019년에 여성이 남성보다 다소 높은 것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비슷하거나 동일하다. 우울감의 경우도 2013년에는 남성이 여성보다 우울감이 높게 나타나지만 이후에는 전반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우울감 수준이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XII-10] 성별 행복감 및 우울감 비교, 2013-2021

1) 행복감



2) 우울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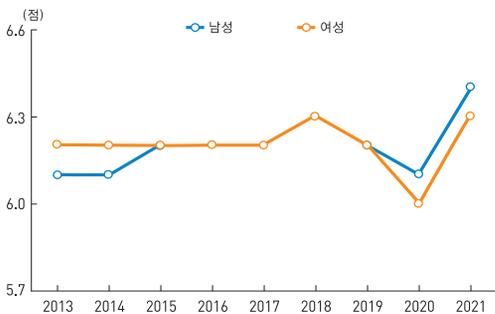


주: 1) 통계치는 긍정 정서인 행복감(0~10점 척도)의 평균값과 부정 정서인 우울감(0~10점 척도)의 평균값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각 연도.



유데모니아의 경우도 긍정적, 부정적 정서 경험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성별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2013~2014년에는 여성이, 2020~2021년에는 남성이 근소하게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남성과 여성이 느끼는 일의 가치와 보람에는 차이를 찾기 어렵다(그림 XII-11).

[그림 XII-11] 성별 유데모니아 비교, 2013~2021



주: 1) 통계치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전반적으로 얼마나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전혀 가치 없다'(0점)~'매우 가치 있다'(10점)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평균값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각 연도.

연령대별 주관적 웰빙의 변화

성별에 따른 주관적 웰빙의 차이는 삶의 만족도에서만 나타났다. 그렇다면 연령대별로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이 질문은 생애주기에 따른 주관적 웰빙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생애주기에 따라 주관적 웰빙은 삶에 대한 희망과 열정이 많은 젊은 시절에 높게 나타나고, 이후 가족이 생기고 직장에서 일이 늘어나는 중년기에 낮아졌다가, 자녀가 출가하고 일에서도 은퇴한 이후 여유를 찾으며 다시 높아진다는 것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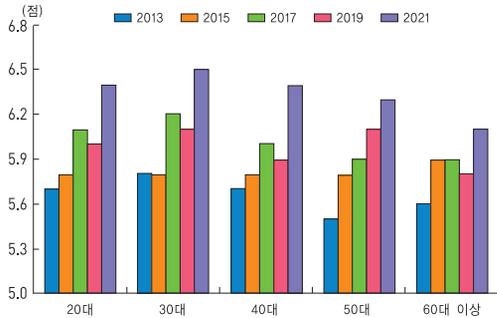
일반적인 견해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생애주기의 일반화된 패턴의 의미가 약해지고 청년층의 희망이 낮아지면서 변화가 나타난다는 주장도 많다.

[그림 XII-12]는 2013년부터 2021년까지의 연령대별 삶의 만족도 평균 변화를 보여준다. 수평축에 연도를 나타낸 앞의 그림들과 달리 이 그래프의 수평축은 연령대이며, 연도별로 연령대별 변화를 막대그래프로 제시하였다. 이것은 비교집단인 연령대가 5개 집단으로 많기 때문이며, 앞서 설명한 생애주기별 패턴을 비교하기 위한 것이다.

연령대별 삶의 만족도 비교 결과 2015년과 2019년을 제외하면 20~40대에 비해 50~60대 이상이 낮은 패턴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3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며, 연도에 따라 차이가 나기도 하지만 50대 혹은 60대 이상이 가장 삶의 만족도가 낮은 편이다. 일자리를 찾고 가족을 구성하는 성인기로의 이행이 지체되면서 30대의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또한 노후에 대한 불안과 빈곤의 문제가 50대 이후의 만족도를 낮추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2019년 이후 이런 추세는 더 두드러진다. 연도별 비교를 하면 삶의 만족도는 2019년에 일시적으로 낮아지지만, 2021년에는 2013년에 비해 모든 연령대에서 삶의 만족도가 상승하였다. 연도별 비교에서 삶의 만족도가 가장 많이 상승한 연령대는 50대이며, 상승폭이 가장 적은 연령대는 60대 이상이다.



[그림 XII-12] 연령대별 삶의 만족도 비교, 2013-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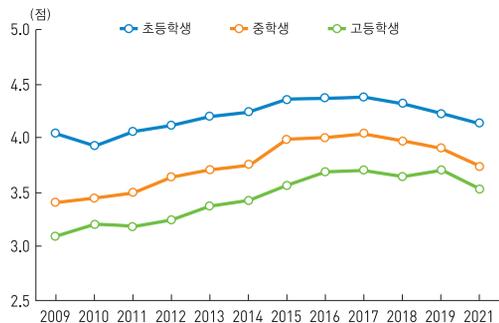


주: 1) 2019년까지 만 19~69세, 2020년부터 만 19세 이상 응답자들 대상으로 함.
 2) 통계치는 자신의 삶에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해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0점)~'매우 만족한다'(10점)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평균값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각 연도.

「사회통합실태조사」는 19세 이상을 모집단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어린이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수준을 확인하기 어렵다. 이러한 유년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삶의 만족도를 조사한 자료로는 한국방정환재단과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2009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한국 아동·청소년 행복지수 조사」 자료가 있다. 이 조사는 매년(코로나19로 2020년 제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을 각 1,500~3,000명 정도씩 표집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림 XII-13]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 평균 변화 추이를 보여준다. 전반적 추세를 살펴보면 2009년에서 2017년까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는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17년 이후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

인다. 2021년 현재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는 초등학교 4.1점, 중학생 3.7점, 고등학생 3.5점을 기록하였다. 조사 기간 동안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 수준은 초등학교, 중학생, 고등학생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한국의 아동과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성인에 비해 높은 편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8년 「아동실태조사」에 따르면 OECD 국가와의 비교 시 아동과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최하위(6.6점)를 기록하였다. 한국을 제외한 OECD 주요 국가들의 아동과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평균(10점 척도 기준)은 7.6점이다.

[그림 XII-13] 초·중·고 학생의 삶의 만족도 비교, 2009-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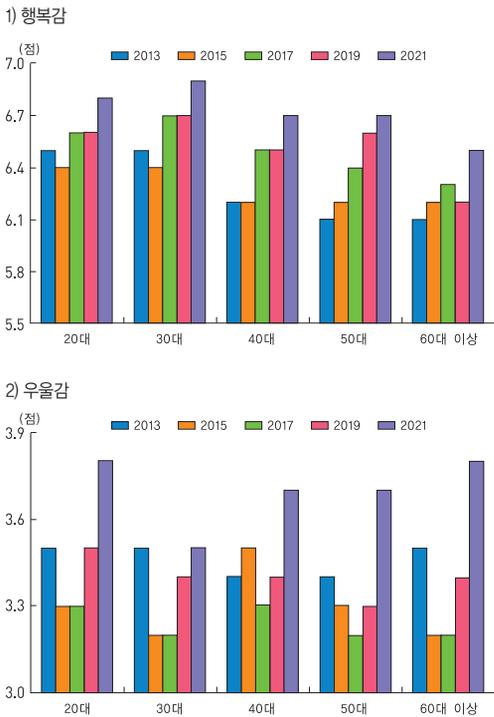
주: 1) 통계치는 나의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5점)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평균값임.
 출처: 한국방정환재단·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한국 아동·청소년 행복지수 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XII-14]는 연령대별 긍정 정서인 행복감과 부정 정서인 우울감의 비교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다. 분석 결과 행복감은 전반적으로 20~50대에서 높게, 60대 이상에서 낮게 나타났다. 이는 삶의 만족도와 동일한 결과이다. 한편 최근의



조사에서 행복감은 모든 연령대에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50대의 경우 행복감 상승 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반면 20대와 60대 이상은 소폭의 상승을 보여주었다. 연령대별 우울감은 전반적으로 20대와 60대 이상에서 높게 나타나고, 30대와 50대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우울감의 상승폭이 가장 큰 연령대는 60대 이상이며, 상승폭이 가장 적은 연령대는 30대이다. 한편 최근 조사에서 우울감은 전 연령대 모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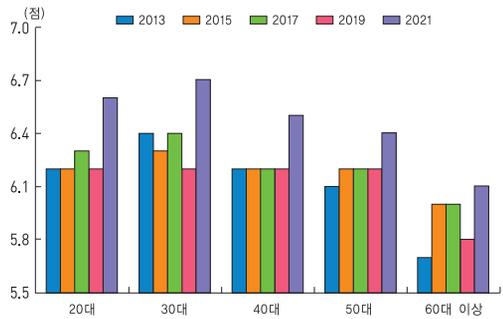
[그림 XII-14] 연령대별 행복감 및 우울감 비교, 2013-2021



주: 1) 2019년까지 만 19~69세, 2020년부터 만 19세 이상 응답자를 대상으로 함.
 2) 통계치는 긍정 정서인 행복감(0~10점 척도)의 평균값과 부정 정서인 우울감(0~10점 척도)의 평균값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각 연도.

[그림 XII-15]는 연령대별 유데모니아를 비교한 것이다. 유데모니아는 20~30대 청년층에서 높게 나타나고, 60대 이상 노년층에서 낮은 패턴을 보인다. 2013년부터 2019년까지의 연령대별 유데모니아 수준은 30대는 하락하는 추세임에 반해 60대 이상에서는 상승과 하락이 번갈아 나타났다. 최근 조사에서는 모든 연령대에서 유데모니아가 상승하였다.

[그림 XII-15] 연령대별 유데모니아 비교, 2013-2021



주: 1) 2019년까지 만 19~69세, 2020년부터 만 19세 이상 응답자를 대상으로 함.
 2) 통계치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전반적으로 얼마나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전혀 가치 없다'(0점)~'매우 가치 있다'(10점)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평균값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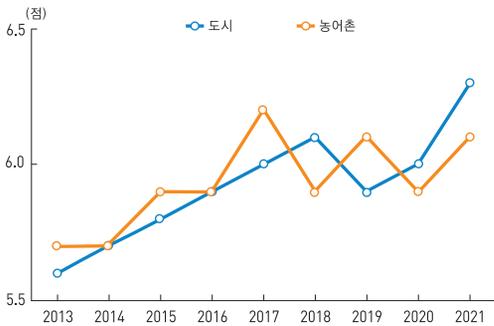
도시 및 농어촌지역별 주관적 웰빙의 변화

인구집단별 주관적 웰빙의 비교에서 마지막으로 도시와 농어촌 간의 주관적 웰빙 수준을 비교해보자. [그림 XII-16]은 도시와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 수준의 변화 추이를 보여주는 것이다. 코로나19 이전까지는 대체로 농어촌지역 주민의 삶의 만족도가 도시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인 2020년과 2021년의 경우, 도시지역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가 농어촌지역 주민보다 더 높게 나타난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불안과 삶의 제약 을 많이 받는 노년층이 농어촌지역에 더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XII-16] 도시 및 농어촌지역별 삶의 만족도 비교, 2013-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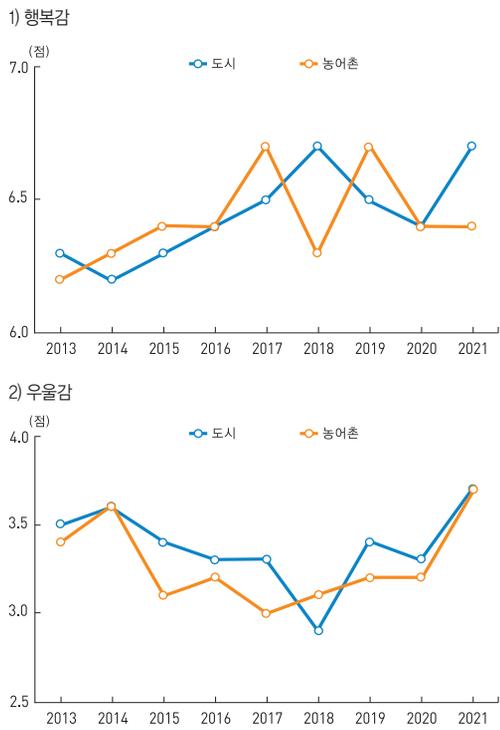


주: 1) 도시는 동부, 농어촌은 읍면부에 해당함.
 2) 통계치는 자신의 삶에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해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0점)~'매우 만족한다'(10점)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평균값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각 연도.

[그림 XII-17]은 도시와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긍정 정서인 행복감과 부정 정서인 우울감을 비교한 것이다. 긍정 정서인 행복감은 삶의 만족도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이전(2018년 제외)에는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행복감이 도시지역 주민보다 대체로 더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인 2020년과 2021년의 경우,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행복감 수준이 6.4점으로 변화가 없는데 반해, 도시지역 주민들은 6.4점에서 6.7점으로 상승하여 도시지역 주민들의

행복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 정서인 우울감은 대체로 도시지역 주민들이 농어촌지역 주민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인 2021년에는 도시와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우울감이 3.7점으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림 XII-17] 도시 및 농어촌지역별 행복감 및 우울감 비교, 2013-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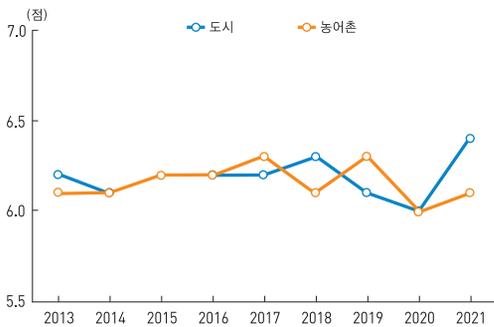
주: 1) 도시는 동부, 농어촌은 읍면부에 해당함.
 2) 통계치는 긍정 정서인 행복감(0~10점 척도)의 평균값과 부정 정서인 우울감(0~10점 척도)의 평균값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각 연도.

[그림 XII-18]은 도시와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유데모니아를 비교한 것이다. 도시와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유데모니아 수준은 2016년까지 비



슷한 수준을 보였지만, 이후에는 모두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한편 2021년 조사에서는 도시지역 주민들의 유데모니아가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삶의 제약과 거리두기의 상황 속에서 도시지역 주민들은 디지털 기반 비대면 서비스의 확산으로 농어촌지역 주민들보다 코로나19의 영향을 덜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더불어 노년층의 비중이 높은 농어촌지역 주민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주관적 웰빙이 낮아진 데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림 XIII-18] 도시 및 농어촌지역별 유데모니아 비교, 2013-2021



주: 1) 도시는 동부, 농어촌은 읍면부에 해당함.
 2) 통계치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전반적으로 얼마나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전혀 가치 없다'(0점)~'매우 가치 있다'(10점)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평균값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각 연도.

주관적 웰빙의 국제비교

한국의 주관적 웰빙 수준은 다른 사회와 비교해서는 어느 정도인가? <표 XII-1>은 2022년

「세계행복보고서」에서 제시한 국가별 행복 지수 값과 순위를 보여준다. 한국의 3년 평균 행복 지수는 5.94점(0~10점 척도)으로 중간값 5점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 세계에서 한국의 순위는 59위로 미국(16위), 일본(54위), 대만(26위)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주관적 웰빙의 격차는 어느 수준이며, 국제 비교에서는 어느 정도인가? 95% 범위로 측정된 한국의 행복 격차는 0.17, 국제 비교에서의 순위는 31위로 평균 수준보다는 조금 높게 나타났다. 격차 수준은 미국(38위)에 비하면 작지만, 대만(24위)과 일본(19위)보다는 크다.

앞서 설명한 대로 물질적 생활수준과 주관적 웰빙 간의 관계에 대한 이스털린의 주장은 특정 사회의 시계열적 비교를 통해서도 검증이 가능하지만, 여러 사회에 대한 동시대적 비교를 통해서도 검증 가능하다.

<표 XII-1> 한국과 주요 국가의 행복 지수 평균 점수 및 격차, 2019-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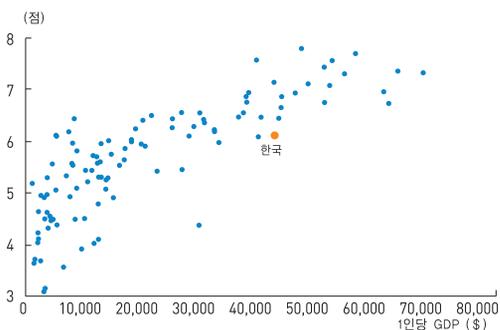
| | 행복 지수 | | 행복 격차 | |
|------|-------|----|--------|----|
| | 평균(점) | 순위 | 95% 범위 | 순위 |
| 핀란드 | 7.82 | 1 | 0.13 | 6 |
| 독일 | 7.03 | 14 | 0.17 | 33 |
| 캐나다 | 7.03 | 15 | 0.16 | 22 |
| 미국 | 6.98 | 16 | 0.18 | 38 |
| 영국 | 6.94 | 17 | 0.15 | 16 |
| 프랑스 | 6.69 | 20 | 0.14 | 9 |
| 대만 | 6.51 | 26 | 0.17 | 24 |
| 이탈리아 | 6.47 | 31 | 0.21 | 62 |
| 일본 | 6.04 | 54 | 0.16 | 19 |
| 한국 | 5.94 | 59 | 0.17 | 31 |

주: 1) 수치는 2019~2021년 3년 동안의 국가별 행복 지수의 평균값, 95% 범위로 측정된 행복 격차와 그 순위임.
 출처: UN, World Happiness Report, 2022.



[그림 XII-19]는 2021년 「갤럽 월드폴」에서 조사한 국가들의 1인당 GDP 수준과 주관적 웰빙 중 삶의 만족도 평균을 산점도로 표시한 것이다. 산점도는 두 변수 간의 관계를 수직, 수평의 두 축으로 구성된 2차원 평면에 각 변수값에 해당하는 좌표에 점을 찍어 표시한 것이다. 이 그림에서 수평축은 1인당 GDP를, 수직축은 삶의 만족도 평균을 나타낸다. 삶의 만족도 평균(수직축)은 물질적 생활수준(수평축)이 높아짐에 따라 처음에는 가파르게 상승하지만, 1인당 GDP가 3만 달러를 넘으면 완만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스틸린의 역설에서 주장한 바가 현재의 국제 비교 자료에서도 확인되는 것이다. 한국은 1인당 GDP가 3만 달러를 넘는 국가들 중에서 삶의 만족도 평균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점에 위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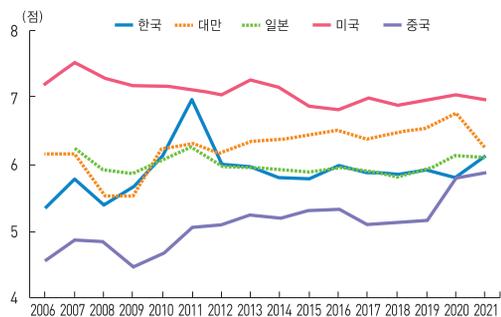
[그림 XII-19] 세계 국가별 1인당 GDP와 삶의 만족도 간 관계, 2021



주: 1) 전 세계 111개국을 대상으로 함.
 2) 삶의 만족도는 자신의 삶에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해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0점)~'매우 만족한다'(10점)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평균값임.
 3) 1인당 GDP는 PPP(Purchasing Power Parity, 구매력 평가) 기준 실질 GDP이며, 단위는 미국 달러임.
 출처: UN, World Happiness Report, 2022.

한국의 삶의 만족도 수준의 변화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서 어떠한가? [그림 XII-20]은 「갤럽 월드폴」 자료를 토대로 2006년부터 2021년까지의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대만의 삶의 만족도 수준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다. 분석 기간 동안 5개 국가의 삶의 만족도 수준은 그 차이가 줄어드는 추세를 보여준다. 한국과 일본은 삶의 만족도 수준의 수치 차이는 있지만 변화 양상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비교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은 삶의 만족도 수준을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완만하게 하락하는 양상을 보인다. 대만은 2010년 초반 삶의 만족도 수준이 한국 및 일본과 비슷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하지만 최근 조사에서는 그 수치가 다소 하락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개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삶의 만족도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은 비교 국

[그림 XII-20] 한국과 주요 국가의 삶의 만족도 평균 점수, 2006-2021



주: 1) 삶의 만족도는 자신의 삶에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해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0점)~'매우 만족한다'(10점)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평균값임.
 출처: UN, World Happiness Report, 2022.



가들 중 삶의 만족도가 가장 낮지만, 지속적으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

맺음말

주관적 웰빙은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의 삶의 질을 종합하여 살펴보는 것으로, 주관적으로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긍정적 정서경험을 많이 하고, 부정적 정서경험을 적게 하며, 자신의 일에 대한 가치와 보람을 느끼는 것이다. 2010년대 이후 한국의 주관적 웰빙 수준은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 일에 대한 가치와 보람 등에서 전반적으로 완만하게 개선되어 왔다. 코

로나19 이후에는 웰빙이 정체 혹은 악화되기도 했지만 최근 들어 개선되고 있다. 주관적 웰빙의 격차는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인다. 주관적 웰빙의 인구집단 간 차이는 성별, 연령대별, 도시 및 농어촌지역별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최근 들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0대 이상에서 주관적 웰빙 수준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코로나19 이후 도시지역 주민들의 주관적 웰빙 수준은 농어촌 지역 주민보다 높게 나타났다. 국제비교에서 한국은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과 비슷하게 물질적 생활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주관적 웰빙 수준을 보인다.

